

단일화 균열 속 본선 돌입... 서울시교육감 선거 '안갯속'

정근식·윤호상 후보 등록 마쳐
보수, 류수노·조전혁 별도 단일화
진보, 한만중 본후보 등록 예고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이 14일 시작됐지만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선거 구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추가 단일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도 후보 간 이견이 이어지며 다자 구도 가능성이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후보 선출 이후 법적 공방에 이어 한만중 후보의 본후보 등록까지 예고되면서 단일대오 구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14~15일 이틀간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 첫날 정근식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직후 "오늘은 서울교육의 다음 4년, 우리 학생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출발선에 다시 서는 날"이라며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갈등을 넘어 책임으로, 경쟁을 넘어 서울교육의 미래로 나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접수가 시작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왼쪽), 윤호상 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은 끝났고,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민주진보 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 서울교육을 지키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며 "더 낮게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더 넓게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상 후보도 후보 등록 직후 서울 교육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는 "서울교육을 바꾸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교육감 선거인 만큼 상대를 비방하기보다 교육자다운 품격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됐지만, 진영별 단일화 갈등이 이어지면서 판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각 진영 모두 단일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이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막판

까지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후보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윤호상 후보는 지난 달 보수 성향 시민단체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추진한 단일화 절차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만큼 추가 단일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수노·조전혁 예비후보가 별도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 후보가 완주의사를 유지하고 여기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예비후보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수 진영 내 다자 구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시민사회 주도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정근식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온 한만중 후보가 15일 본후보 등록을 예고하면서 다자 구도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정 후보 측은 전날까지 민주진보 진영 통합 원탁회의를 제안하며 통합에 나섰지만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한만중 후보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성사되지 않았다. 홍제남 예비후보 역시 앞서 진영 대통합을 제안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완주의사를 재확인했다.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13일 정근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경쟁 후보들과의 단일화가 완결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단일화 결과를 존중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일부 경선 참여 후보 측이 제기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항고 기한인 13일 자정까지 별도 항고가 없어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경쟁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원팀의 시간"이라고 경선 참여 후보들의 합류를 요청했지만, 한만중 후보가 본후보 등록 방침을 밝히면서 진보 진영 단일대오 구축은 더 어려워진 모습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런 3.0' 확대... AI 영어·진로교육 강화

서울시, 학습사이트 28개로 넓혀
맞춤형 멘토링 통해 사회 진출 지원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과 진로 콘텐츠를 추가하며 기능을 확대한다.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런 3.0'의 일환으로 AI 기반 영어 학습 콘텐츠와 진로 콘텐츠를 새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콘텐츠는 AI 영어 학습 서비스 '말해보카'와 비즈니스 트렌드·직무역량 관련 강좌 2500여 개를 제

공하는 이라닝 플랫폼 '스튜디오(Studio.io)'다. 이에 따라 서울런 학습사이트는 기존 26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이용자 1명이 선택할 수 있는 학습사이트 수도 기존 진학 4개, 진로 2개 등 최대 6개에서 8개(진학 4개, 진로 4개)로 확대된다. 새로 신설되는 'AI·진로' 카테고리에서는 패스트캠퍼스, 클래스101, 구름에듀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계발' 카테고리에서는 스튜디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대학, 청소년시설, 진로체험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 캠퍼스'를 기존보다 늘려 60개소에서 운영하고, 항공, 반도체·로봇, 뷰티 등 분야 체험 프로

램을 통해 청소년 25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관련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고등학생 이상 회원에게는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한 AI·로봇 프로젝트형 교육과 캠프를 운영한다.

서울런 멘토링은 학습 관리와 정서 지원 중심에서 진로 컨설팅까지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이용자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사회 진출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아이들의 잠재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 출발선이 달라

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런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런 누적 회원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2025년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상승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이용 가구 비율도 2023년 42.1%에서 2024년 52.4%로 올랐고, 대학 합격 인원은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6학년도 914명으로 증가했다.

/이현진 기자

화성특례시 수소차 192대 보급 최대 3500만원 지원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대규모 수소차 동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보급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동시에 투입해 시민 참여 기반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 실천과 수소 기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목표로 추진되며,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급 물량은 총 192대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차량 1대당 총 3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비 2250만원과 시비 1250만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수소차 구매에 대한 시민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디올 뉴 넥쏘'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1세대 또는 1개 법인당 1대씩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12월 4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상시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화성시는 현재 관내 6개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화성시청 서부권, 화성휴게소, 비봉, 송산, 동탄 종합경기타운, 남부권 등 주요 거점에 충전 시설을 구축해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여주도자기축제, 106만명 찾았다

2년 연속 100만명 방문한 메가 축제
전 세대 아우르는 프로그램 마련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가 관람객 106만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올해 축제는 '세종이 열리고, 여주가 빛나는 도자의 시간'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공연, 먹거리를 아우르는 체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소비를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축제는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메가 히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펄스와 블랙이글스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함께 '보는 도자'에서 '체험하는 도자'로의 변화를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규모 행사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지역 상생과 글로벌 축제의 도약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김광덕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관람객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예인과 시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 모든 관계자의 협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여주도자기축제에서 김상범 도예가의 모습.

뜻을 전했다. 이어 "여주 도자의 전통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

장도 "106만 2000명의 관람객과 함께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2년 연속 100만 관람객 달성은 시민과 도예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여주(경기)=이숙영 기자 sy1321@